

1. 출제 의도

1) 논제 제시 및 입론 능력 평가

논쟁적인 주장이 담긴 글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2) 제시문 독해 및 분석 능력 평가

각 분야의 고전이나 이에 견줄 만한 정평 있는 저술들에 소개된 문장, 도표 등에 대한 독해 능력과 분석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3)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 제시 능력 평가

지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특히 각 지문의 견해나 관점을 수용하거나 비판함으로써 지문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4) 조건에 맞는 서술 능력 평가

각 문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서술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표현의 정확성도 함께 측정하고 평가한다.

2. 각 제시문의 출처와 내용 소개

[가]

이 제시문은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이 1958년에 발표한 「자유의 두 개념」에서 소극적 자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자유론』, 박동천 역, 아카넷, pp. 374-375). 이 글은 신(神)이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된다고 생각되었던 전통적인 인간 개념과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행동의 대상이 아닌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자유로운 개인 개념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종교적 권위, 사회적인 질서, 심리적 충동이나 욕망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 개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의 토대가 된다.

[나]

이 제시문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이 1897년에 쓴 『자살론』(황보종우 역, 청아출판사, 2008)의 2부 3장 「이기적 자살(속)」(pp. 201-261)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뒤르켐의 이 글은 자살이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결코 환원할 수 없는, 철저히 사회적 원인을 가지는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 글은 개인을 사회라는 커다란 유기체의 한 부분으로 취급하며, 따라서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은 종교, 가족, 정치 각각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거나, 그러한 모든 사회적 집단의 통합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임을 강조한다. 사회통합의 정도가 강할수록 개인이 자살을 할 경향성은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통합이 약해지면 자살을 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자살이라는 개인적 선택 뒤에 있는 사회적 영향의 힘을 잘 보여준다.

[다]

이 제시문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1949년에 쓴 소설 『1984년』의 부록에 나오는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글이다. 이 글에서는 영국 사회주의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뉴스피크어’라는 새로운 언어 체계의 전파와 확립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국 사회주의 이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만을 남기고, 그 이념에 맞지 않는 어휘들은 폐기하거나 이차적인 의미를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영국 사회주의의 원칙에 벗어나는 개념이나 사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글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언어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

이 제시문은 노신(魯迅)의 「북경통신(北京通信)」이라는 글로 1925년 『예보부간(豫報副刊)』에 처음 발표된 작품이며, 발췌한 지문은 논술시험의 목적에 맞춰 일부 수정을 가한 것이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생존을 외치는 고훈이 고래로 중국에 많이 전한다고 밝히고, 그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 예들은 차례로 『맹자(孟子)』, 『사기(史記)』, 『효경(孝經)』에 있는 옛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고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뒤이어 그토록 생존에 목을 맨다면 차라리 북경의 제1감옥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감옥 생활은 안전하기는 해도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 생존을 지상과제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암석, 모래가 나올 거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면서, 결국 고훈으로부터 벗어난 주체적 삶을 위한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다.

3. 문항 설명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이 문항은 제시된 지문의 요약 능력, 제시된 지문들의 견해나 관점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술하는 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문항에서는 우선 제시문 [가]의 내용을 주된 견해나 관점을 중심으로 일정 분량으로 요약한 뒤, [가]와 견해나 관점을 달리 하는 제시문을 모두 골라 [가]와 다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가]의 내용 요약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은 자연적 인과성에 지배되지 않는 초월적 존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신의 영향력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 열정, 저급한 충동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이성적 반성과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전통의 토대가 되는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 행동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된다.

2.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의지와 이에 따른 행동을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한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내리는 결정과 행동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이는 외양일 뿐 실재는 자연적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주어진 4개의 제시문은 이러한 견해 차이에 따라 크게 두 편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시문 [가]의 핵심 논지는,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기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를 담은 제시문은 [나]와 [다]이다.

2-1. 제시문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나]는 자살을 사회 통합의 위기 내지 붕괴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현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일견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마저 사회적 환경이라는 외적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나]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상충된다. [가]는 근대 유럽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사상적 전통에서는 인간의 비이성적 측면이 아닌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고, 타율이 아닌 자율, 행동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인간, 저급한 충동이나 자제력을 잃은 행동이 아닌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묘사하는, 사회가 병이 들었을 때 개인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아 자살에까지 이르는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제시문 [가]는 자율적이고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자유주의적 주체의 모습을, [나]는 비합리적이고 수동적이고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주의적 강압의 수동적 대상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기술을 하고 있다.

2-2. 제시문 [다]의 관점이 [가]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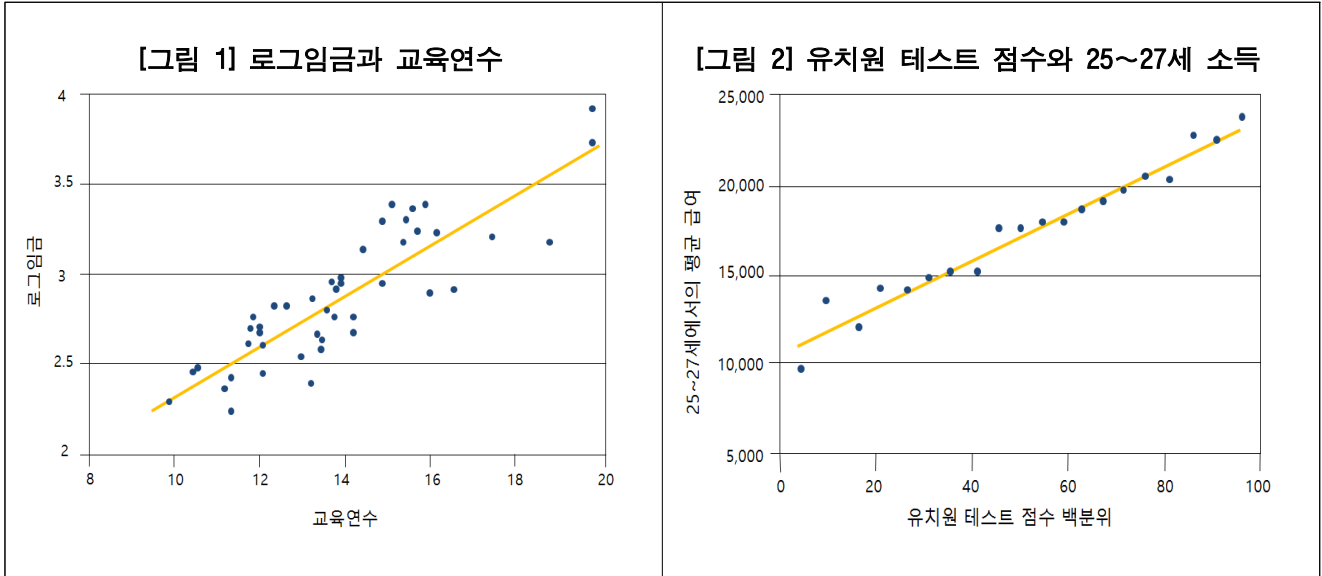
제시문 [가]에서는 우리의 사고가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하여,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문 [다]는 영국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어휘들을 제거하고 단어의 의미도 인위적으로 통제된 ‘뉴스피크어’라는 새로운 언어의 사용이 확산되면 영국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우리의 사고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제시문 [다]는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언어 결정론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제시문 [가]와는 그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문항 2】

[그림 1]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 관측되는 근로자들의 평균 로그임금*과 평균 교육연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미국에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STAR***라고 불리는 한 실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실험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이 학업과정 종료 후 실시된 학업성취도 테스트에서 올린 점수의 백분위와, 세월이 흘러 그들이 노동 시장에 뛰어들 25~27세에 얻은 평균소득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 * 로그임금: 시간당 임금에 로그(log)를 취한 값
- **교육연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햇수(years of schooling)를 의미
- ***STAR: 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학생/교사 성취 비율



[그림 1]과 [그림 2]를 모두 이용하여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논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이 문항은 도표와 그림을 이해하고, 이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임금으로 측정된다. 그러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수준과 근로자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림 1]은 대부분의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교육연수와 로그임금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로그 값의 변화는 변화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1]에 그려진 직선의 기울기는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평균적으로 몇 % 증가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1]은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2]는 유치원 시절의 테스트 점수가 성인기의 근로소득과 정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성인기의 소득수준이 이미 유치원 시절에 결정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만일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의 테스트 점수가 근로자의 타고난 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림 2]만 가지고서는 유치원 이후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없다. 만일 유치원 때 교육을 잘 받아서 시험점수가 좋았던 학생들이 이후 정규교육도 충실히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대학진학률도 높았다고 가정한다면 [그림 2]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면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1]과 [그림 2]로부터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즉, [그림 2]를 타고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림 1]을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림 2]를 정규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림 1]을 교육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킨 결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마도 현실에서는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즉,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도 맞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 중에 일부는 타고난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일 것이다.

본 문항의 답은 하나로 주어지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문항의 채점에서 중요한 점은 학생이 [그림 1]과 [그림 2]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문항에서 제시된 주장을 평가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각각의 관점에서 답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예시답안 1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임금으로 측정되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수준과 근로자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면 된다. [그림 1]은 교육과 임금률의 정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림 2]는 유치원 시험점수가 성인기의 소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교육을 받기 전의 시험점수는 타고난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이 그림은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그림 1]은 단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 예시답안 2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임금으로 측정되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육수준과 근로자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면 된다. [그림 1]은 교육과 임금률의 정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더하여 [그림 2]는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치른 시험점수와 성인기의 소득 또한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로부터 유치원 때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이후 학교교육을 잘 따라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을 받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림 2]는 특히나 어린 시절의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항 3】

<보기>는 변호사 A 씨의 법정 변론의 일부이다. A 씨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시오.(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우리 모두는 유전과 환경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일개인으로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의, 아니 전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한, 범죄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입니다.

○ 이 문항은 <보기>의 주장이 담고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이를 제시문의 논거들을 활용하여 논제로 구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1. 개요

<보기>에서 변호사 A 씨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범죄자의 자연적 성향 내지 사회문화적 환경에 돌림으로써 범죄자의 범법 행위를 변호하고 있다. A 씨의 이러한 변호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범죄자를 포함한 우리 인간 모두가 실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떤 불가항력의 외적 결정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A 씨의 주장에 찬성한다면, 인과적 결정론을 논지로 삼는 [나]와 [다]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유의지 내지 자율성 옹호를 논지로 삼는 [가]와 [라]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반대로, A 씨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가]와 [라]의 논거는 지지하고 [나]와 [다]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각 제시문에 나타난 지지 또는 비판의 논거들을 잘 가려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완결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지문의 논거 활용

1) A 씨의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

[가]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이 제시문은 개인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열정 등의 내부적 요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행위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 현대 과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성향이나 기질 등의 많은 부분이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결정되어 있고 후천적으로 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이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제시문 [가]의 입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나]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제시문 [나]는 자살이라는, 개인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위조차도 철저히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이면에는 사회 통합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개인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인과적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개인의 행위라는 결과에 독립적인 힘을 미치는 것은 개인 자신의 의지나 동기라기보다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적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 A 씨가 다루는 범죄행위라는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범죄자가 행하는 행위 또한 철저히 그 자신의 내적 동기나 순수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죄행위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나 생물학적·유전적 요인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한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 A의 주장은 지지될 수 있다.

[다]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제시문 [다]는 우리의 사고가 언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결정론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이나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인간을 총칭하는 데 사용되는 'He'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자 했던 여권 운동가들의 노력은, 뒤집어 생각한다면 성차별적인 사고나 행동의 주된 원인은 성차별적인 언어 체계 혹은 그 언어 체계의 일부인 어휘라고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범죄 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가 한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이나 자유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변호사 A 씨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제시문 [라]에서는 고훈의 부자유스러움을 지적하면서 고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누구도 고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곧 고훈은 역사적, 사회적인 검증을 거쳐 받아들여지고 대대로 통용된 것이기에, 해당 사회의 성원들에게는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위를 동반하며 일종의 불문율처럼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만약 각 개인이 자유롭지 않다는 이유로 고훈을 어긴다면, 우선 스스로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회의 존속은 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개인들에게는 구속감을 줄 수 있지만, 사회의 존속을 위해 제기되어 당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문에 제시된 감옥이라는 비유는 이러한 고훈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 A 씨의 주장에서의 유전과 환경 역시 고훈처럼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앞서 주어진 조건이라는 점에서, 상기의 맥락에 비추어 제시문 [라]는 변호사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 A 씨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

[가]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이 제시문은 현대 사회의 기본 질서로 인정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전통에 이론적 토대가 되는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칸트의 자유로운 개인 개념에 따르면, 개인은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신과 같은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열정 등의 내부적 요인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존엄한 존재이다.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볼 때, A 씨의 주장은 현대 사회의 기본 질서인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거부한

다. A 씨처럼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거부하게 되면, 개인은 행위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인을 거부하는 세계에서는 모든 행위가 허용될 것이며, 심지어 살해와 파괴마저도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의 행위 주체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생명체뿐만 아니라 사물들과의 차이가 없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존립마저도 위협하는 A 씨의 주장은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수용될 수도 없다.

[나]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이 제시문은 자살의 원인을 사회통합의 수준, 혹은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 있다. 물론 어느 개인이 자살을 행한다고 하였을 때 거기에 사회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반면,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살에까지 이르지 않고 계속 삶을 영위해나간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설사 자살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 결단과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라는 것이며, 이에 전체 인구 중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자살을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자살을 철저히 사회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이 굳건하게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자살을 할 것이며, 그 중 많은 자살은 결국 그 개인의 내면적 결정을 통해 발생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원인을 개인 외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 주체성과 성찰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설명력 차원에서나 윤리적 차원에서나 모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변호사 A 씨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유전이나 환경으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위의 원인을 외생적인 요인들에서 찾는다면,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이기적 판단에 의해 범죄 행위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변호사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다] 제시문: 비판해야 할 논거

언어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언어가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free'라는 어휘의 의미를 제한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그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은 동의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단어는 늘 새로운 의미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래 왔다. 또한 어린 아이는 어른들로부터 입력된 것을 단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복잡한 문법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결정론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한 개인의 범죄 행위가 자율적인 결정이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변호사 A 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라] 제시문: 지지해야 할 논거

제시문 [라]는 생존을 위해 고통대로 살았으나 그 결과 오히려 생존하지 못했으며, 설령 생존한다 한들 구차하게 목숨만 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럴 때라야 구차하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영위할 수 있

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변호사 A 씨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곧 변호사 A 씨의 주장처럼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은 고훈에 따라 구차하게 생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암석이나 모래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삶을 영위하는 태도가 아니며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4. 문항별 평가 기준 및 점수 부여

【공통으로 유의할 사항】

- 각 문항의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각 문항에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에는 감점한다.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잘 요약하고 있는가? : 30점(만점)
 - 2)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을 모두 찾았는가? : 10점(만점)
 - 3) 주된 견해나 관점이 다른 제시문의 논거를 잘 요약하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가? : 60점(만점)
- [문항 1]의 점수 = {1) + 2) + 3)} * 30/100

【문항 2】

[그림 1]과 [그림 2]를 모두 이용하여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논평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 1) 근로자의 생산성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 20점(만점)
 - 근로자의 생산성이 근로자의 임금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지적한 경우 20점
 - 근로자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임금을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10점
 - 2) [그림 1]과 [그림 2]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30점(만점)
 - [그림 1]을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하고 [그림 2]를 근로자의 소득이 유치원 시절에 결정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면 30점
 - [그림 1] 또는 [그림 2]만 올바르게 해석하였으면 20점
 - 3) [그림 1]과 [그림 2]를 관련시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 50점(만점)
 - [그림 1]과 [그림 2]의 내용을 매끄럽게 관련시켜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50점
 - [그림 1]과 [그림 2]의 내용을 매끄럽게 관련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30점
- [문항 2]의 점수 = {1) + 2) + 3)} * 20/100

【문항 3】

<보기>는 변호사 A 씨의 법정 변론의 일부이다. A 씨의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 하시오.(1,000자 내외, 배점 50점)

- 1)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제시문들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잘 지지하고 있는가? 30점(만점)
- 2)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는 제시문들의 논거를 논리적으로 잘 비판하고 있는가? 30점(만점)
- 3) 제시문들의 논거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잘 조직하고 있는가? 20점(만점)
- 4) 표현이 정확하고 문장구성력이 우수한가? 20점(만점)

■ [문항 3]의 점수 = {1) + 2) + 3) + 4)} * 50/100